로마서 11장 by Pastor CHUCK SMITH

로마서 11장을 열도록 합시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써 첫째의 목표가 이스라엘나라를 잠깐 제쳐놓고, 그의 성령님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시어 이방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들도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을 보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롬 10:2) 고 말씀하셨습니다.

11장에서는 10장의 연속입니다. 원래의 원어 성경에는 장을 나누는 것이 없습니다; 장과 절로 나눈 것은 사람들이 읽고 참고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한 장을 읽고 중지하는 경우, 그 다음 새로운 장을 읽을 때는 그 전장(前章)의 사상이 연속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원래의 성경은 장,절을 나누지 않았고, 편지와 같이 계속 해서 그 사상을 묘사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읽음이 중요합니다. 장과 절을 나눈 것은 사람들이 읽고 참고하기에 편하도록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11:1상)*

현재 불행히도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영적화하여 교회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교회에 관련시켜 버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혼돈 상태에 빠지게 하여,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앵글로 섹슨 나라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구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 두 지파가 누구며, 어디에 있는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각 지파에서 뽑은 12,000 명을 대 환란의 어떤 심판에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교회를 이스라엘로, 아니면 앵글로 섹슨 족속을 이스라엘로 간주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덴마크 나라를 이스라엘의 단 지파라고, 혹은 덴 사람(Danish)이라 논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Ish' 란 말은 '사람'이란 뜻인데, 'Danish' 란 말이 발음상으로 덴 사람들이라 하여, '단' 지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British가 영국 사람, foolish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음과 같이, 그들의 성경해석이 어감으로 해석하는 옳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것이 됩니다. 단지 예언의 말씀을 혼돈케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며, 이방인들의 완전한 수가 차기 까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과 영원히 끝을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구약성경의 전체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관해서 하심은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아주 흥미로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녀를 아내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예언적인 이름이나 예언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을 "로아미"라 하셨는데, 그 뜻이 "나의 아이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과 결혼 중에도 옛날에 하던 창녀노릇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의 남편을 완전히 버리고, 그의 생활은 격심한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완전히 망하였고, 노예로 팔려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노예로 팔린 여인을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켜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너의 아래로 받아 드려라" 고 하셨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과의 관계를 가진 호세아의 전 생애는 하나님께서 신실치 못한 이스라엘 나라와 자신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취하고 결혼하시고, 자신의 아내로 삼으시며, 영광스러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에게 눈을 팔고, 생명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아 그들을 다시금 데리고 와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미래에 있을 것인데,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바울은 주장하면서 말하기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11:1하)*

지금 베냐민 지파는 잃어버린 족속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느 족속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잃은 족속으로 간주되는 베냐민 지파인 우리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히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오셨고, 그들은 말하기를,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잃어버린 족속들이며,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족보를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이 어느 족속에 속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인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11:2-4)*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도전하여 대승리를 거둔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자!" 고 제안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라는 시합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고랑의 물까지 모두 말려 버리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바알의 400명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데리고 내려가서 기손 강가에서 그들을 죽여 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악한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엘리야의 머리를 베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베리라" 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를 갔습니다.

가장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전형적인 일입니다. 그리하여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두려워 아니하고, 그들을 죽여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화가 난 여인이 두려워 단숨에 시내 산까지 도망을 가더니, 어느 동굴에 숨어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왕상 19:13).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왕상 19:14). 엘리야의 말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 같습니다' 라는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 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 19:18) 고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 신실한 남은 자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군지 아시며, 숫자까지 헤아리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항상 유대인들 가운데 그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특별한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일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특수하고, 신실한 믿음이 돈독한 남은 자들의 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엘리야 시대에도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7000명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바알에게 굴하지 아니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11:5).*

바울의 시대에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때에,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교회가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은 신실하게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11:6)*

다른 말로 한다면, 은혜와 행위는 상호간에 배타적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영접하시는 것을 내가 기대한다면, 나의 행위로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만일 내가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접되기를 원한다면, 은혜가 나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가 배타적인데도 우리는 이 둘을 겸해 보려고 애씁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나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은혜라면,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행위라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가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11:7)*

이제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를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희생제사의 전 목적이었습니다.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의를 세워 보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오늘날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욤 키퍼라는 날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한 날이 아니고,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지키는 욤 키퍼라는 날은 자기들의 착한 행실을 자기가 행한 악한 행실을 능가하여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 보고자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한 날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유대인들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위를 기초하여 하나님께 영접 되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여 많은 다른 교회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행위를 기초하여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 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의 규칙이나 성찬예식에 충실히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잘 행하면 영접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기초하여 하나님께 영접 되어 보려고 힘쓰는 자들입니다. '많은 일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참으로 일꾼들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일합니다.' 대문을 두드리며, 밖에 서 있는 자들을 보면, 이 사람이 들이 어디서 왔는지 금방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흰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가가호 방문 전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몰몬교 신자임을 곧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잡지가 든 책 가방을 들고 다니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임을 곧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종교단체는 자신의 행위를 기초하여 하나님께 영접 되여 보려고 노력하는 단체들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에서라면,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접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얻어졌고, 남은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였던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11:8-9)*

바울은 그가 주장하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확실시하기 위하여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너 구절을 인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아주 좋은 확실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였고, 또 다윗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 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11:9-11)*

이스라엘 넘어져서 영원히 제거를 받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11:12)*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이스라엘을 잠깐 제하여 두시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잠간 제하여 둠이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가 충분히 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가져왔거늘, 하물며 저들이 회복될 때에 물론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천년 왕국이 올 때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가져 오겠습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11:13)*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문을 돌립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는데 대한 많은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그를 반역자로 몰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준다는 이러한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위협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선언은 많은 교회들과 종교기관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친구 중에 카나다에 있는 앵글리칸 교회의 집사로 봉사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중생을 받아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대단했다. 그가 앵글리칸 혹은 에피스코펠리안 사람들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의 생활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자유주의적인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능력도 받고, 하는 일에 별 이의가 없이 잘 적응을 해나가다가, 그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중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그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신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중생을 했고, 나중에 그것을 확인만 받으면 된다는 교회가 믿고 있는 근본 신조에서 어긋나게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이 중생을 해야 된다는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에, 교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켜, 결국 그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대신에, 그들의 행위를 믿었고, 유아세례와 확인의 의식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의 직분을 더욱 크게 여겨, 말하기를,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조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11:14)*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가 비록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마음 깊은 속의 기도와 소원은 저들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격렬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며, 유대교로 개종하여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 때문에, 바울을 이단사상을 가르치는 자로 여겨 격분하여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소원과 기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말하기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 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11:15)*

이스라엘을 잠깐 버림이 하나님과 이방, 세상나라 사이에 화목이 되었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여, 다시금 그의 은총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 때는 무슨 일이 일어 나겠습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11:16)*

처음 익은 열매인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자손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찌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11:17-20)***

교회역사를 살펴 보면, 교회와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불행히도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불행히도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카톨릭교회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갈 때, 그는 반 유대의 사상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자신도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신교에 들어왔고, 오늘날 많은 신교 목사들이 반 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줄 알기 때문에, 신교 목사들로부터 증오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자주 받곤 했습니다. 원가지가 꺾인 것에 대해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짤라 버렸으므로, 그들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당신들은 원래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원래의 기질에 맞지 않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으므로 꺾김을 받았고, 너는 믿음으로 서게 되었으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여 두려워하라! 고 하셨습니다.

나도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을 위한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기도는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보리 채플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라는 그 부르심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거역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 집회를 할 마음의 부담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야 한다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지만, 내 마음에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님을 이방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의 전도 노력은 재정적인 낭비로 느껴지며, 그 재정을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은 편이라 느낍니다. 나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에서 낚시질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방나라 가운데도 열매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은 재정 낭비인 것 같아서, 현재는 그 재정을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사용함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가서 질투를 자아내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메시야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우며, 나에게 화평과 기쁨을 얼마나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당신들의 메시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나의 믿음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눈이 어두워져 있는가를 볼 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들의 눈이 아주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몇 년 전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 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수상인 베긴과 같이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예루살렘의 메오샤렘 지역에 있는 랍비들로부터 증오에 찬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정통파들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지한데 대한 불만의 내용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러한 초정통파의 데모의 주된 목적은 유대인들과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자기들의 메시야에 대한 관념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메시야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권리가 없고, 당신도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도 아직 갖지 못했고,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에 대한 극심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메오샤렘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요르단 왕에게 편지를 써서, 메오샤렘 지역을 요르단에 부속 지역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는 어떤 일에도 관여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불법적인 국가로서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나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그룹의 관광 유대인 인도자에게 내가 예수를 증거해 왔던 이유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말하기를, '당신들을 또 만나게 되어 참 기쁩니다! 그런데 내가 한가지 당신들에 보여줄 것이 있는데, 당신들의 랍비들이 나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오!' 라고 말하고, 그 증오에 찬 편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하는 말이, '오, 이것은 쓰레기 편지입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신자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그들은 당신들의 랍비들이 아닌가요?' 라고 하자, '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 광신자들입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랍비들도 종교적 광신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아스럽게 묻자, 그들은 말하기를,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나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한 같은 종류의 종교적 광신자들이 자기의 신조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한 과격론자들의 무리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당신들도 그러한 과격론자의 무리들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은 말문이 막혀 할 말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잘려졌고,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서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11:21).*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1-5) 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며, 우리의 원래의 기질에 맞지 않는 반대의 기질에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았는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복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부와 영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만이 얻게 된 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하나님께서 원래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11:22).*

하나님의 은총과 복 주심의 자리로부터 떨어짐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11:22-23).*

그들이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받아 주실 것입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11:24)*

당신이 이방 족속인 돌 감람나무에서 잘림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11:25상)*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는데, 무슨 비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11:25하)*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길거리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녁 만찬에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 하실 때에, 어떤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말하기를, "나가서 손님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고 하였습니다. 사환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올 수 없다고 합니다" 라고 보고했더니, 왕이 다시 명하기를, "그러면 나가서 길거리로 다니며,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고 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손님이 오기를 거절하였을 때에, 그 초청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란 말은 모두가 아니고, 부분적인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다시금 남은 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혼인예식에 참여할 것인지 그 수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면, 그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왕국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란 말씀이 바로 그 숫자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구절을 보면, "이방인의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때가 기술적으로 1967년에서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성취될 때까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67년 이후로 이방인의 충만한 때까지, 즉 이방인들의 성취의 때 사이에, 우리는 짧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이방인들이 1967년에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 가운데도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 위의 어느 곳에 있는 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왕국에 들어와야 할 이방인들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디즈니랜드에 500만 명째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갑자기 나팔소리가 나며, 북을 치며, 말하기를, '당신은 디즈니랜드를 500만 명째 방문하는 자' 라는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는 모든 것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수를 계수하다가, 마지막 500만 명째의 사람이 들어올 때에 축제가 시작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오심도 이방인의 마지막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마지막 이방인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왕국에 한 부분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을 생각 할 때에, 나는 날마다 그 복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이스라엘의 가려진 눈이 열릴 것입니다. 러시아가 중동을 침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을 것인데, 이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소식통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러시아가 시리아에 SS21이라는 무기를 배치시킴으로 중동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의 고위 지휘관들은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의

안전에 절대적인 위협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곧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쉽게 러시아와 전쟁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비극의 결과로 중동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게 레바논을 포기하라는 말을 쉽게 할 것에 대해서 별로 놀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산을 잘못하여 중동에 대한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나의 친구의 말과 같이, '워싱턴에 앉아 있는 자들이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기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라고 외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요사이 자기 나라의 젊은 소년과 소녀들의 훈련 광경을 담은 필름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소녀들의 훈련광경을 이스라엘의 TV에 방영했습니다. 그러나 CBS, NBC, ABC는 이 필름이 별로 뉴스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방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필름을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를 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막아 보려고 할 때에, 얼마나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 방식과 우리들의 사고 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정부가 제작한 이 특수한 필름은 전쟁을 대비한 소녀들의 군사 훈련이었으며, 러시아 보좌관들이 이미 8000명이나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필름은 시리아 소녀들이 뱀을 가지고 다루는 행동을 찍은 영화였습니다. 이 소녀들이 복무하는 군대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뱀을 물어 뜯기 시작하여, 그들의 입이 피로 가득 덮여 있고, 그 후에 뱀을 생채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그 뱀을 죽기까지 물고 찢고 하다가 죽으면, 먹기 시작했습니다. 피바다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이스라엘 TV에 방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도 잔인한 광경을 비위가 상하여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에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또 작은 강아지를 목졸라 죽이며, 사지를 모두 찢어 버리는 너무나 잔인한 장면도 있었는데, 이 장면은 TV에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녀들을 위한 군사 훈련은 아주 냉정하고 무감각하며,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과 대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대결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상태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병대를 그곳에 보내어 군인들의 행동을 한정시키고, 마치 오리사냥을 하는 사냥꾼들에게 사냥을 당하도록 가만히 앉아 있게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도 묶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우리들의 손을 묶어 놓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나와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가 강 건너편에서 자기들의 방어 태세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계속 그러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들은 당신들을 모두 살해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들이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중동으로 쳐들어 올 것입니다. 러시아가 중동으로 침입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가담하셔서 침략하는 러시아의 군대를 전멸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날에는 이스라엘의 가려진 눈이 열릴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볼 때가 되는 때입니다.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이 때가 하나님께서 러시아 군대를 멸망시키는 날이다](겔 39:27).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겔 39:29).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이방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려진 눈이 열릴 것이며, 그 때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신을 이방인들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 그들은 메시야를 알아 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11:26-28)*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심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요, 복 주심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11:28)*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11:29)*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11:30-33).*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쳐두신 이스라엘을 다시금 그의 절대주권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방 가운데서 역사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11:34-36).*